

2019년 6월 7일



## 이스라엘 정부 해산

아세르 인트레이터

약 두 달 전에 리쿠드당과 우파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선에서 이긴 듯 보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정치 책략의 복잡함 가운데, 그리고 야빅도르 리베르만의 다소 괴상한 연립정부 참여 거절 때문에 연립정부 구성 시한이 끝나 네타냐후는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의 정상적인 절차는 리블린 대통령이 두 번째 다수 득표 정당인 베니 간츠가 이끄는 청백당에 대신 정부를 구성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현 크네셋을 해산하고 가을에 새로 총선을 할 것을 의안 발의했습니다. 이 의안이 통과되어 9월 16일이 다시 총선일로 정해졌습니다.

온 나라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듯 보이는 정치체제에 다소 충격, 혹은 좌절, 혹은 낙망에 빠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저희들조차 당혹하여 이런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몇 달 동안 긴박한 기도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정부 마비와 재정비 배후에 무엇이 도덕적, 영적, 정치적 목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난처한 실패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 외에, 기도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1. 네타냐후의 지배력** - 히브리어에는 “메실룰” מְשִׁילִים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기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 안에는 십여 개 정당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새 총선을 통해 사람들이 네타냐후 주위로 몰려들어 훨씬 큰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그가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까요?

**2. 네타냐후에 대한 기소** - 반대 상황은 다음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네타냐후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그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권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회기 중인 정권의 와해를 초래하기 보다는 다음 선거 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세기의 거래** - 들어선 정부가 없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안이 다음 총선까지 지연되거나 네타냐후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냥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협상이 네타냐후가 하지 않을 타협을 의미한다면, 다른 정부는 그것을 기꺼이 승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 협상이 있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없는 것이 더 나을까요?

**4. 하레디의 장악** - 세파라디계와 아쉬케나지계 양대 극정통 종교정당이 현 네타냐후 정부 안에서 과도하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들 하레디 정당들에게는 장단점이 있지만 분명 반-메시아닉, 반-기독교, 반-이스라엘군 등 그냥 “반-무엇”의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연립정부가 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5. **연합 정부** - 보통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현재의 이런 교착상태가 네타냐후와 간츠의 양대 정당이 거대 연합 주류 연정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연합 정부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도전들에 맞서는 데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건강한 합의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6. **아엘렐 샤케드** - 인기 있고 매우 보수적인 전 법무부 장관은 나프탈리 베넬과 함께 만든 새 정당이 최소 비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크네셋에서 자신의 의석을 잃었습니다. 새 총선에서는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파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7. **선거제 개혁** - 현재의 딜레마가 선거제 개혁을 초래하여 행정부를 입법부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더 큰 선거구를 구성하는 최소 비율을 변경하거나, 또 다른 해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적 복잡성으로 인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몰아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치는 너무 가변적이어서 지금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계속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새 총선이라는 사건을 더 기도하며 더 낮고 더 의로운 정부가 일어날 것을 믿는 기회로 삼도록 합시다.



## 나의 두려움 극복기

제레마야 스밀로비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비되게 하는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간증하는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시청해 보십시오!